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기획세션 IV : DMZ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나리나 평화공공외교협력단

'DMZ FORUM 2021: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는 지난 21일부터 22일 이틀간 개최되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실천 방안의 자리로서 기획되었다.

'기획세션4 'DMZ 동북아 평화네트워크'는 21일 오후 4시 50분부터 8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 세션은 북한과 동아시아의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평화협력의 제도화와 습관화를 추진하기 위해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DMZ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연결되어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국제협력의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통일연구원 고유환 원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사후 협력을 위해 많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동북아 차원에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어 접경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달성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 월슨센터 패트릭 맥키천 연구위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진실한 대화를 통해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화 협정을 맺었다고 평화가 자동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북한은 주변 주요국 간에 신뢰관계 부족으로 상대국의 핵심 우려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 고상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그는 한반도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핵화와 교류·협력 둘 다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성공적인 조건으로 접경협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제2 외교정책"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접경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성공조건을 고찰하였으며 접경협력이 DMZ 평화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토론에 나선 연세대학교 존 들레리 교수는 북한과 비핵화, 평화, 안보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 개념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한국인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생각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 평화안보와 관련된 주장을 포함시켜 한국의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석우 교수는 통일에 대해 과거와 다른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은 단계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단계별

접근을 강조하면서 현재 남북관계의 침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호간에 인도적 지원과 접경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유환 원장은 남북협력을 접경지역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기획세션 IV : DMZ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신은지 평화공공외교협력단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5월 21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그중에서도 '기획 세션 4 - DMZ 동북아 평화네트워크'는 남북한을 넘어 동북아 주변국들의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우리 혼자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시작됐으며 각 연사의 발제에 이어 라운드테이블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이 세션은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트릭 맥키천 前 월슨센터 연구위원, 고상두 연세대학교 교수, 존 들레리 연세대학교 교수, 김석우 서울시립대 교수 등 한국과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화협력의 제도화와 습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DMZ 휴전선을 둘러싼 남과 북의 '경계 허물기'와 '경계 쌓기'의 반복적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이번 세션이 접경 지역 간의 상호교류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과 더불어 동북아의 핵심 평화 네트워크로서의 DMZ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패트릭 맥키천 前 월슨센터 연구위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야심차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라 예측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종적인 방법은 통일이라 역설하였다. 미국 정부 또한 한반도 평화 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제적이면서 포괄적인 평화 로드맵을 추구해야 함과 동시에 북한과 미국 등 주변 주요국 간 신뢰 증진을 위한 기본 거래 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평화 협정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다려서도 안 되며 북한이 역내 압박 완화나 병력 재배치에 관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유엔제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중요하며 비핵화 진전과 함께 DMZ를 매개로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공동어로와 같은 교류협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상두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소장은 '접경 협력의 개념과 DMZ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먼저 현재와 같이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한 교류 협력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DMZ를 평화지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접경 협력에 관한 개념과 이론적 논의에 대해 논의하며 현재의 접경 협력은 '제2 외교정책'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접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접경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천적(?) 및 다층적 거버넌스에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접경 거버넌스의 성공조건으로 다층적 연결망, 안정성, 유연성, 핵심 조정자의 존재 등 네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접경

협력은 하나의 이슈가 아닌 과정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접경 협력은 대북제제와 무관하게 혹은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며, "구도나 제도보다는 행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DMZ의 정체성을 확산해 협력을 국제화시켜야 한다는 점" 을 제안하였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며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들을 공유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존 들레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매키천 교수의발제문을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보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이견이 대북정책의 선택과 연과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목표로 하는 평화 협정과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진화하는데 미국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그는 평화협정을 제기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언급하는 한편, 평화협정이 제안되고 추진될 수 있는 시점에대한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 간에 시각차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핵심 행위자는 북한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 외부의 평화 협정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는 북한이 "진정한 평화 협정을 향한 의지"를 내보일 수 있는 시점과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한국학자들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wishful thinking"에 그친 반면 중립적 시각을 가진 경우나 외국의 학자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 차이를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작은 단계의 협력으로부터 시작해 큰 단계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보여지는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 속에서도 남북 간 접경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며 존 들레리 교수의 지적에 힘을 보탤다. 주장의 핵심은 협력의 필요성은 담보되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협력의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을 전제로 남북협력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동시에, "늘 분배 협상과 통합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상이론을 인용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협력의 협상당사자들의 position taking이 아닌 interest sharing에 집중한 뒤 공통된 이해관계를 넓혀가는 협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의 접경 협력의 원칙과 제도를 세우는 데 있어 동남아의 아세안의 사례를 검토하길 당부하였다.

답변에 나선 패트릭 매키천 연구위원은 최근 남북 간의 견해차에 대해서 재인식하며 현재 시점에서는 북한의 달라진 요구 사항들을 추적해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 또한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상두 교수는 과거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분권화된 접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모든 (대북) 정책은 다 잔인한 정책이다"라고 역설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초당적인 대북정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고유환 원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DMZ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 네트워크 중심지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자신의 포부를 밝히며 세션을 마무리하였다.